

## 내년 인공위성 발사에 1천115억원 투입 한국 최초 우주인에 고산씨 선정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흥군 외나로 도의 우주센터 건설에 507억원, 우주발사체 개발에 608억원 등 모두 1천115억원의 예산을 내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발사체(로켓)로 발사한다'는 목표로 우주센터 건설, 과학기술위성 개발,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주센터는 올해 말까지 발사 통제동, 교육 홍보관 등의 주요 시설과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발사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세계 9번째 국가가 된다.

한편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한국우주인 후보자(고산, 이소연) 중 고산씨를 탑승우주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1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탑승하는 러시아 우주선이 2008년 4월 8일 오후 8시(한국 시간)에 발사돼 임무를 마치고 같은 달 19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 KUH 시제 1호기 부품 가공 착수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지난 11월 5일 본사 부품동에서 KUH 시제 1호기 부품 가공 착수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정해주 사장을 비롯해 사업단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말 기본설계 검토회의(PDR)를 완료하고, 8월 16일 KUH 1호 도면이 출도 됐으며, 이후 출도된 도면 중 중앙동체의 기계가공 부품을 선정해 생산을 착수하게 됐다.

당초 부품 생산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안정된 조립 일정 확보를 위한 부품의 선형 개발 및 생산 투입 절차의 확인을 위해 2개월여 앞당겨 부품 가공을 시작하게 됐다.

부품 가공 착수와 더불어 KUH 개발의 핵심 국산화 품목인 주로터 블레이드의 레이업 몰드(Lay-up Mold)도 전시하여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로터 블레이드는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꺼리는 핵심 복합재 부품으로 이번 파일럿 블레이드의 제작을 통해 난해 기술의 사전 확인과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T-50 2000회 무사고 비행

지난 11월 6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기 T-50이 2000회 무사고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아랍에미리트(UAE)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선정 프로젝트에서 T-50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번에 2000회 무사고 비행시험에 성공한 시제기는 총 4대로, 2002년부터 비행시험에 투입됐다. 2005년 5월 1000회 무사고 비행시험을 기록한지 2년 만에 2000회를 넘겼다. KAI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지구 둘레의 4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아무 사고 없이 비행했다"며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훈련기"라고 설명했다.

UAE의 훈련기 선정은 영국 BAE 시스템스



의 호크 128 훈련기가 후보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의 M-346 훈련기와외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이다. UAE는 총 10억 달러를 들여 고등훈련기 35~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협력위 의장국 당선

지난 11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개최된 제182차 이사회회에서 한국은 36개 이사국 전원의 지지로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C)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TCC는 이사회 산하 5대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대개도국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회의체로서 개도국들의 관심이 큰 위원회이다. 한국은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이래 이번에 최초로 상임위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이는 한국이 2001년 이사국에 진출한 이래 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논의에 건설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

한 이사국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 세계 항공 운송 실적 8위, ICAO 분담금 기여규모 8위 등 그간 항공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국내 최초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 본격 조립 착수**

과학기술부와 항우연은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조립 및 시험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 조립에 착수한다고 지난 9월 13일 발표했다.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은 모든 위성체와 탑재체를 해외에서 수입했던 무궁화위성이나 한별위성과 달리 설계부터 조립 및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우리 기술진이 대거 투입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성체의 조립과 시험의 모든 과정을 국내 항우연의 조립 및 시험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저궤도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정지궤도 위성 개발 기술이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기상청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기관으로는 항우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상연구소, 해양연구원 등 국내 기관과 프랑스의 아스트리움사(EADS Astrium)가 위성체 개발의 해외협력개발기관으로,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사(Arianespace)가 발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사업은 2003년 9월

에 착수되어 2005년 5월 프랑스의 EADS 아스트리움사와 공동설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계를 착수했으며 지난 2006년 1월에 예비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3월에 상세설계를 마무리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설계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했다.

2009년 6월에 발사할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아시아 전 지역과 북남미의 태평양 연안,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기상 관측 임무와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 감시, 국산 통신탑재체 우주인증실험 및 공공서비스 활용이라는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기상 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은 많지만 해양 관측 임무까지 수행하는 정지궤도위성이라는 점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이 세계 최초로 해당한다고 항우연은 밝혔다.

**건설교통부,**

**15건의 항공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표**

건설교통부는 최근 항공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007년도 항공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발표 과제는 세계적 추세와 항공기 정비기술 향상 등 여건을 반영해 항공운송사업 진입 및 항공기의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항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쌍발항공기로 제한되어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단발항공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사업용 회전익항공기는 기령 25년 이하로 제한됐지만, 정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객운송용 항공기에는 기장과 보조종사 등 2명의 조종사가 탑승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

공기에는 1인 조종이 가능하도록 승무원 탑승기준이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의 운항관리 및 공항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성항공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사업자와 달리 운항시마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복비행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달리 국적항공사는 연간 500건이 넘는 운항변경 신고 시마다 3,000원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가 폐지된다. 경항공기 급유차량의 공항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공항에서의 장기간 주기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항공기의 공항이용이 편리해지도록 했다.



쌍발항공기(위), 단발항공기(아래)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실의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수동적 체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